AI는 대체 아닌 보완, 비관론 불식하며 증시 반등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트럼프 국정연설 대기하는 가운데 AI S/W 반등

- 미 증시는 DOW +0.76% S&P500 +0.77% NASDAQ +1.04%, Russell +1.19% 임의소비재, 기술주 중심의 상승
- 관세, 이란문제 영향으로 약세 출발했던 증시는 AI S/W 패닉셀 이후 우려 완화 양상에 공포심리 완화되며 상승 전환. VIX -7.0%
- 트럼프 국정연설 앞두고 이란문제, 관세, 이민정책 등 발언 대기하며 채권시장 관망세
- 일본 다카이치 총리 BOJ 추가금리인상에 난색 표명 소식에 엔화 급락. 엔달러+0.81%

'AI 우려 과도' 앤트로픽-S/W 파트너십에 힘 싣는 글로벌 IB 코멘트

- S/W ETF(IGV) +1.9%, 고점 대비 -35%까지 하락했던 S/W 간만의 반등
- 최근 S/W, 사이버보안주 패닉셀의 원인이 된 앤트로픽 기업형 AI 제품 '클로드 코워크'의 업데이트를 소개하며 세일즈포스(CRM, +4.1%), 팩트셋(FDS, +5.9%), 도큐사인(DOCU, +2.6%) 등 S/W 기업과의 파트너십 발표. 구글드라이브, 지메일 등 기존 도구들과도 연동 가능하다고 밝힘
- 파이퍼샌들러는 앤트로픽 서비스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강화하는 것이라 주장. 웨드부시 역시 최근의 S/W 매도세가 과장되었고, AI 도구가 기존 S/W 생태계에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권한 전면 개방을 요구했으며, 응하지 않을 시 공급망위험으로 지정 내지 국방생산업 발동 제재 경고했다는 보도

소비신뢰지수 완화, 당분간 동결 쪽으로 기우는 연준 입장

- 2 월 CB 소비자신뢰지수 91.2, 컨센(87.4) 및 전월치(89.0) 상회. 1 월 지표 급락 후 개선되며 시장 우려 완화
- 연준위원 발언은 인플레이션 경계론과 AI 낙관론으로 요약. 굴스비 총재와 보우먼 이사는 현재 3%대의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안된다는 입장. 월러 이사와 쿡 이사는 AI 로 인한 단기실업률 상승 가능성은 인정하나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뺏을 것이라는 비관론은 일축.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동력으로 해석

특징주: 다시 살아난 S/W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MD	AMD	+8.8%	메타(+0.3%)와 $100B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. 메타는 자사 데이터센터용 칩 공급을 위해 AMD 와 5 년 장기계약을 맺음. 올해 1GW 를 시작으로 향후 6GW 까지 규모 확대 예정
IBM	IBM	+2.7%	앤트로픽발 우려 해소되며 반등. Wedbush는 앤트로픽의 AI툴은 기존 S/W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완·확장할 것이라 분석. 또한 클로드코드가 수십 년간 구축된 기업의 인프라 및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평가
AAPL	애플	+2.2%	관세 리스크 축소 기대감에 주가 상승. CEO는 맥 미니 생산라인 일부를 아시아→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 보도. 또한 TSMC 애리조나 공장으로부터 1억 개 이상의 칩 조달을 확정, 2나노 공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선점하며 공급망 내재화
HD	홈디포	+2.0%	4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 상승. 특히 동일매장 매출이 컨센 크게 상회